

전북교육, 대학과 함께 미래 연다

전북교육청, 전북대·국립군산대 등 도내 국립대학과 교육협력 선포식

초·중·고등교육 간 연계 강화로 지속가능 교육 생태계 구축 적극 협력

내달 교육협력 체계 구축 공식화... 전북 교육 질적 도약 제도적 토대 마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지속 가능한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내 국립대학과 손을 맞잡았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2층 강당에서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 '교육협력 선포식'을 가졌다.

이는 교육청과 대학이 협력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는 계 목적이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병춘 전주교대

총장, 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본청 실·과장, 대학 보 직교수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을 통해 전북교육청과 3개 국립대학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 연계를 강화해 상호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구

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육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교육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의 비전도 제시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7월 각 대학에 협력관을 파견해 대학과의 교육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한다. 아울러 △협력지원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과-대학 연계 교육과정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력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교육복지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운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물적 지원을 상호 공유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단순한 업무 교류를 넘어, 전북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의 상시적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전북대가 지역 교육역신의 중추적 거점 역할을 강화하게 됐다"며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의 상생하는 공공 국립대학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큰 뜻을 함께 해 준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총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내 국립대학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해 지역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전북형 교육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국가기록관의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기록물 관리 체계화 인정

전북교육청,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국가기록관리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록관리 유공 포상은 국가기록관리 발전과 기록문화 확산 및 인식 제고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기록보존서고 정비 및 운영 기준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산하 14개 기록관에 일괄 적용해 기록관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였다. 단순한 서고 정비를 넘어 기록관리 전반에 체계적인 기준을 수립·적용한 점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각 기록관의 환경과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침을 마련해 실무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러한 기록물의 생성부터 보존,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기반이 됐다. 자체 보존기준 평가기준도 도입해 기록물의 현장 평가 역량을 높이고, 지도점검 방식도 내실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기록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북교육기록연구협의회'를 신설,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무 중심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번 수상은 전북교육청의 기록관리 체계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교육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9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전북교육청,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와 함께 하는 '교육협력 선포식'이 열린 가운데 서거석 교육감, 양오봉 전북대 총장 등 관계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李 대통령 교육 공약 세심히 살펴야”

서거석 교육감, 전략회의서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교육 공약과 향후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길 바랍니다.” 서거석 교육감(사진)은 9일 전략회의에서 “AI 교과서 지위라든가 교사 연수, 기초학력 보장 관련 총괄평가, 온·동체 초등 돌봄, 유보통합, 시도교육청 평가 제도 변화 등에 대해 눈여



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요 정책과 함께 갈 수 있어야 학생에게 도움이 된다"며 "우리 정책이 교육부 정책과 조화롭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충남의 한 고등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4년 동안 학교 폭력에 시달렸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학교폭력을 당하면 평생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는다"며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해 피해 학생을 구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13년간의 지역혁신 프로젝트 과정 담았다

우석대,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 출간... 3부로 구성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은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성과를 담은 '청년, 지역의 미래를 말하다'를 출간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지난 13년 동안 대학생과 성인 학습자들이 주체가 돼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제안해 온 실천적 프로젝트의 성과를 집약한 기록이다. 이는 단순한 사례집을 넘어 실제 지역 정책의 변화 과정을 담은 '지역혁신 서사'로 평가받고 있다. 9일 우석대에 따르면 책은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했는지를 다루고 있으며, 그들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현장을 탐방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온 과정을 담았다. 2부는 완주와 순창, 고창 등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을 중심으로 총 17회에 걸쳐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를 지역별·주제별로 정리했다. 이 중 일부는 실제 정책으로 실행됐으며, 나머지는 실행을 앞두고 있거나 논의 중이다. 3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와 함께 해당 모델의 국제적 확장 가능성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우석대 미래융합대학은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완주로컬푸드 2.0 미래 전략' 발표회에서 단기 제안 중심의 기존 프로젝트를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실험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인 황태규 미래융합대학장은 "지역과 청년을 연결한 이 모델은 이미 국제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교육모델을 통해 국내외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고병원성 AI 백신 산업화 시동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 코미팜 등과 다년간 MOU

전북대학교 조류질병연구소(소장 장형관)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백신 산업화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주)코미팜(대표 문성철), (주)바이오드(대표 강민)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코미팜 본사에서 HPAI 백신 산업화를 위한 다년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량 생산 체계 구축과 산업화 전략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협약은 백신 기술의 실용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협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2021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한 H5N1형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기존 살처분 중심의 방역 정책이 한계를 보이면서, 예방백신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다. 전북대 조류질병연구소는 현재 유럽 등 선진국에서 임상 중인 바이러스 벡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3세대 고병원성 AI 유전자 백신 후보를 개발 중이



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권장하는 DIVA 전략을 적용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연구소의 탁월한 연구 역량에 더해 관련 기업들과 산학 공동연구를 통한 시제품 생산에서부터 현장 적용까지 아우르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돼 기존 해외 기술 의존에서 벗어나 국내 기술 중심의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3세대 고병원성 AI 예방 백신 산업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력이 돌입해 보다 실효성 높은 백신 솔루션을 구현하고, 향후 글로벌 수출시장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폐교된 계화초교, 전시공간으로 새단장

'지음부안학교역사관' 개관 지역 교육·공동체 기억 품어

폐교된 초등학교가 지역 교육의 역사와 공동체의 기억을 담은 전시공간으로 다시 태어났다. 9일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수안)에 따르면, 폐교된 계화초등학교 일부를 새롭게 단장한 '지음부안학교역사관' 개관식이 이날 열렸다. 이날 개관식에는 서거석 교육감, 권익현 부안군수, 김수안 부안교육장, 부안 관내 학교장,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국민의례, 환영사, 축사, 테이프 커팅, 전시 관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지음부안학교역사관은 폐교를 교육의 역사와 지역의 기억을 품은 의미 있는 공간으로 되살려 다양한 세대



폐교된 계화초등학교 일부를 새롭게 단장한 '지음부안학교역사관' 개관식이 9일 열렸다.

가 함께 공감하고 지역과 함께 걸어가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조성됐다. 역사관 내부에는 부안 관내 학교의 연혁, 폐교와 개교 현황, 과거의 교육

활동 사진, 교명관 등이 전시돼 있다. 앞으로 학생과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부안 교육의 발자취를 함께 기억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부안=김석진 기자

‘교원임용시험이 궁금하시다면? 교육 영상으로’ | 전북교육청, 대응력 강화 영상 제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 영상을 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영상은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과 부정행위 유형, 감독관의 현장 대응 요령 등을 생생히 담아내 응시자는 물론 시험 감독관의 이해를 돕고자 기획됐다. 기존의 PPT 중심 설명과 교육은 이해도와 몰입도가 낮고, 유튜브 등 영상에 익숙한 MZ세대에게는 다소 교육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한

개선안이기도 하다. 영상 촬영은 지난 4~5일 부안의 폐교인 계화초등학교에서 이뤄졌다. 지방공무원 행정연구회인 '이그잼 세이프' 회원과 임용시험 전문 인력 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연구원 촬영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그잼 세이프' 회원 15명이 영상 시나리오와 콘티 제작 및 세트장 설치에 직접 참여했고, 전문 인력들은 재연 배우로 힘을 보탤다. 영상에는 △시험 전 준비물 △응시

자 유의사항 △시험장 점검 사항 △감독관 응대 요령 △부정행위 유형별 대응 방안 등을 담아낼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제작하는 교육 영상은 오는 8월 있을 응시자 대상 교원임용시험 공개 설명회와 2026학년도 교원 임용시험 감독관 사전 설명회 등에 활용된다. 김낙훈 교원인사과장은 "이 영상이 부정행위 예방과 안정적 시험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산욕기 산모 통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효과 분석

전북대 황은숙 박사·노주희 교수, 여성건강간호학회 '우수논문상'

전북대학교 간호대학 황은숙 박사와 노주희 교수가 최근 열린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제63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이번 논문은 산욕기 산모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통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연구진은 Cox의 대상자 건강행위 상호작용모델을 기반으로 영양과 신체활동, 스트레스

관리, 산후관리 등 다양한 건강요소를 통합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를 출산 후 6주 이내 산욕기 산모 44명에게 적용해 산후피로 감소, 산후우울군 비율



황은숙 박사



노주희 교수

감소, 모야애착 향상 등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했다. 이는 산모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유대, 관계적 지지까지 포함한 통합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산욕기 산모의 건강증진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장은성 기자